“지역 주요 현안, 여당의 적극 협조·지원 요청”

국힘-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

市, ‘군공항 범정부협의체’ 재개
道, 쌀값 안정·특별자치도 추진
추경호 “지자체와 소통·협력 확대”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25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와 전남도가 국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광주는 ‘군공항 이전 범정부협의체’, 전남은 ‘쌀값 안정·특별자치도 추진’ 등을 적극 건의했다.

2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24년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이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순회 실시하는 권역별 예산정책협의회로, 광주시·전남도·전북도 등 호남권 3개 시·도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구자근 예결위 간사, 조지연 원내대변인 등 중앙당 지도부와 김정현 광주시당 위원장,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 조배숙 전북도당 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강 시장, AI 사업 예산 반영 요청

이 자리에서 강기정 시장은 “지난 2~3일 ‘국회, 광주의 날’ 행사에 깊은 관심과 힘을 실어줘 감사하다”며 “광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대통령이 AI(인공지능) 2단계 사업과 미래차국가산단 그린벨트 해제 문제, 교통망 구축 등 여러 현안에 매우 긍정적인 의견과 답변을 주셔서 광주가 큰 힘을 받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예산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 최대 현안인 민·군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 현재는 중단된 국무총리실 주관 ‘광주 군공항 이전 범정부협의체’ 운영 재개 등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또 국민의힘에 주요 현안 10건과 국비 지원 사업 11건 등 총 21건을 건의했다.

△광주 민·군공항 통합 이전 추진 △복합쇼핑몰 입점 예정지 교통인프라 신속 확보 △기후위기 대비 영산강 먹는 물 활용 사업과 인공지능과 미래차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국비 지원 △인공지능 전환(AX) 실증밸리 조성(AI 2단계) △GIST 부설 AI영재고등학교 광주 설립 △자동차 부품 재제조 및 순환경제체계 구축 △미래차 인지 부품의 표준 기반 신뢰성 인증센터 기반 구축(신규)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역 현안 예산과 입법에 대한 건의를 듣고 힘을 모아 해결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국민의힘이 더 많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 SOC 1조원 이상 건의

전남도는 쌀값 안정과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사회간접자본(SOC) 1조원 이상 확보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여당인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전남 행복시대를 여는데 국민의힘이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안관련 정책 4건, 법률·제도 4건, 국고 지원 12건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특히 산지 쌀값 안정과 관련해 “2023년산 전국 쌀이 15만 톤이상 재고 발생이 예상돼 신곡 산지 쌀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2024년산 신곡 예상 초과 물량 40만 톤 시장 격리 등 정부의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전남특별자치도에 대해선 “중앙정부에 모든 권한이 집중돼 지방에서 주도적으로 정책모델을 마련하거나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 비교우위 산업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 지역 주도의 새 모델을 만들겠다”고 특별법 제정 지원을 요청했다.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립 김산업진흥원 △K디즈니 인력 양성 △여수세계섬박람회 △광양 공업용수공급사업과 화순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간척지 활용 첨단 수산양식 배후단지 △민간 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수출특화형 복합에너지 퓨처팜 MG 플랫폼 △국립 민속씨름원 △2025 국제농업박람회 등 현안 사업의 반영과 증액을 요청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전남의 지역 현안에 공감을 표하면서 “민생안정과 지역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핵심 현안을 충분히 살피고,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노병하·오지현 기자

가을밤 수놓는 ‘광주 사운드파크 페스티벌’ 개최

내일 김대중센터 야외광장 일원
스텔라장·윤마치·밴드 다섯 출연

광주시는 도심의 가을밤을 수놓을 ‘2024 광주 사운드파크 페스티벌’을 27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광장에서 개최한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사운드파크 페스티벌’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유명 뮤지션의 무대를 선보이는 대중음악 야외 페스티벌로,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다.

특히 올해는 광주시 가을축제 통합브랜드 ‘G-페스타’의 하나로, 같은 장소에서 ‘2024 광주 에이스페어’와 ‘비어 페스트 광주’와 함께 열려 풍성한 문화 콘텐츠 대잔치가 될 전망이다.

‘굿 뮤직, 굿 바이브(GOOD MUSIC, GOOD VIBE)’를 주제어로 따뜻하고 발랄한 보이스와 매력적인 멜로디로 매력을 발산하는 스텔라장, 청춘을 위로하는 밴드 다섯(DASUTT), 시원한 가창력으로 행복을 전하는 싱어송라이터 윤마치(MRCH), 일상의 소중함을 노래하는 허지욱, 재즈를 기반으로 평온을 표현한 ART4가 무대를 꾸민다.

참여팀은 모든 곡을 직접 연주해 시민들에게 도심 속 힐링 무대를 선사한다. 공연 관람은 무료다.

특히 이번 공연은 ‘비어 페스트 광주’와 함께 열려 12종의 푸드트럭에서 판매하는 광주 대표 음식, 세계 음식 등을 맛보며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등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은아 콘텐츠산업과장은 “광주 대표 야외 음악축제인 ‘사운드파크 페스티벌’은 도심 속에서 즐기는 음악페스티벌의 진가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